

野 단일화, 후보등록 전 불발되나

14일 등록...1차 데드라인 임박 안철수 "대선 레이스 완주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일 "둘 사이에서 단일화를 만들어보려는 인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안 후보와의 '일대일 담판'을 해법으로 제시한 뒤 안 후보 측 반응을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협상 단계에서부터 안 후보 측에 책임총리 자리나 공동정부 구성 등을 제안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게 윤 후보 주변의 전언이다. 윤 후보의 일부 참모는 여론조사 경선에 의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사실상 안 후보의 자진사퇴와 양보를 의미하는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후보에게는 야권 단일화가 최

선의 선택지"라며 "그대로 완주하든 자리를 요구하면서 단일화하든, 그에게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쟁 방식의 단일화를 하면 협상 과정에서 혼란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며 "시너지가 나오기 어려운 형태의 정치 공학"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단일화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춘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확신한다"며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의 자진사퇴 압박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일이 없다"고 불변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러브콜'에 대해서도 "저는 정권 교체를 하러 나왔다"고 반응했다.

결국 오는 14일 후보 등록 마감 전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 후보가 오는 11일 토론 이후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남 목포까지 내려가는 유세 열차에 탑

승할 계획이어서, 주말 접촉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앞서 단일화의 1차 데드라인으로 제시됐던 14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 셈이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서로 신뢰하고 정권 교체라는 방향이 맞으면 단 10분 안에도, 커피 한잔 마시면서라도 끝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후보 대 후보 간 일대일 담판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단일화 논의가 전격적으로 급물살을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후보 등록 이후에도 단일화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 투표용지 인쇄(28일)와 사전 투표(3월 4~5일)를 변곡점으로 양측의 기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일화를 이루면 더 쉽게 승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한 출혈이 너무 크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적폐 청산 수사' 발언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소동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당선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책 홍보 열차 타고 주말 전남 순회

이준석 동행...맞춤공약 제시 호남서 25% 득표 목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책·공약 홍보 열차인 '열정열차'를 타고 주말인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을 순회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열정열차 첫 열차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충남 천안역을 출발, 충청·전북 권 소도시를 들렀다가 12-13일 전남권 5개 시군을 돈다. 호남과의 동행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열차 첫 목적지를 호남으로 정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과 일정을 전남권에 집중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다가올 대선에서 호남권 득표율을 최근 25%로

상향한 국민의힘은 전남의 지역별 맞춤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순천과 여수, 보성, 무안, 목포역 등에서 정차해 주민들에게 지역별 맞춤공약을 제시하며 표심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물론 전남 지역과 인연이 각별한 인사들과 함께 곳곳을 돌며, '대선 호남권 득표율 25%' 달성에 전력을 쏟아부으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저와) 윤석열 후보는 전남을 1박2일 돌며 전남 중소도시 곳곳을 세밀하게 챙기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예컨대 광주와 고흥 나로우주센터까지 가는 고속도로, 다도해 인근 광역상수도 보급, 속도감 있는 다도해 연륙교 건설 지원, 신안지역 관광산업 진흥, 흑산공항 조

기건설 등 준비한 공약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지방언론사 등 여론 조사를 보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젊은 세대 호응이 크다"며 "이번 대선 승리를 바탕으로 곧 이어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방의회에 진출시켜, 장기적으로 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호남권을 순회하는 1회차 열정열차에 이어 국민의힘은 오는 26일부터 2박 3일 동안 영남권을 순회하는 2호 열차를 준비 중이다. 열정열차는 후보가 직접 방문하기 힘든 중소도시 주민과 소통을 늘리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무궁화호 열차 4량을 빌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선후보 오늘 2차 4자 TV토론 대격돌

尹 '적폐 청산 수사' 발언 공방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1일 2차 TV토론을 갖는다. 지난 3일 첫 토론에 이어 8일만에 진행되는 이번 토론의 주제는 청년 및 코로나 정책이지만, 윤 후보의 '집권시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이 막판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자유주제 토론 계기에 이 이슈를 둘러싼 4자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무협의에서 ▲2030 청년 정책 ▲코로나 방역 및 위기 극복 대책 ▲일반 자유 토론 ▲자유 주제의 정책 토론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 토론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토론과 마찬가지로 '대장동 게이트'로 판을 몰아가는 것에는 휘말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지도자로서 국정 철학을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민생과 청년 대책 분야에서 '일 잘하는 보수정당' 주자로서 역량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도 집요하게 파고들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경쟁자들이 상호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동안 미래 비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문제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엇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다른 후보들의 정책·공약과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공약을 최대한 선명하게 부각, 진보정당 주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3~14일 대선 후보 등록...15일부터 선거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관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

도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확장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15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같은 기간 선거구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관련법 개정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이면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구는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2곳이며, 중도 사퇴로 인해 보궐선거를 하는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남구 등 3곳이다.

/연합뉴스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다자대결서 李·尹 35% 동률...당선가능성尹이 역전

한국리서치 등 4사 전국지표조사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 10일 나왔다. 다만 당선 전망에서는 윤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5%, 윤 후보는 35%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달 24~26일 진행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변화가 없고, 윤 후보는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로 이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포인트 증가한 4%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는 16%로 2%포인트 줄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윤 후보를, 34%가 이 후보를 뽑았다. 올해 NBS 조사에서 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조사에서는 이 후보 38%, 윤 후보 37%였다.

응답자의 48%는 TV토론이 후보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크다고 했으며 46%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국민의힘(38%)보다 민주당(60%) 지지층에서 더 많았다. 정권 심판론이 45%로 여전히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51%로 긍정적(43%) 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34%, 국민의당 6%, 정의당 5%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9.7%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p> <p>●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p> <p>● 월수익 750만</p> <p>● 년수익 9000만</p> <p>●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p>																	
<table border="1"> <tr><td rowspan="5">광주</td><td>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td></tr> <tr><td>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td></tr> <tr><td>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td></tr> <tr><td>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td></tr> <tr><td>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td></tr> <tr><td>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td></tr> <tr><td rowspan="5">전남</td><td>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td></tr> <tr><td>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td></tr> <tr><td>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td></tr> <tr><td>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td></tr> <tr><td>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td></tr> <tr><td>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td></tr> <tr><td rowspan="2">시외</td><td>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td></tr> <tr><td>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td></tr> </table>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전남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전남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